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마련

채원영 연구원

■ 정부는 경기부진과 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서민 취약계층에 연간 1조 원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연간 3조 원에서 약 1조 원 늘어난 연간 4조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리도 인하할 예정임.

- ‘햇살론¹⁾’의 연간 공급규모는 현행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조정 하고, 지원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2%p내외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임.
- ‘새희망홀씨²⁾’의 연간 지원규모를 현행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신용·저소득자³⁾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미소금융⁴⁾’의 연간 공급규모는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증액⁵⁾ 운용할 방침임.

- 1) 햇살론은 서민들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으로 정부와 서민금융회사(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조 원씩을 출연하여 향후 5년 동안 10조 원 지원을 목표로 2010년 7월에 출시한 상품임. 6~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000만 원이하의 저소득자가 대상이며 금리는 10~13%(1% 보증료 별도)임.
- 2) 새희망홀씨 대출은 16개 은행이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활용하여 5~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10~14%의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임.
- 3) 저신용(7등급 이하)·저소득(2천만 원 이하) 대출비중(∼'12. 6 누계기준): 74.7%
- 4) 미소금융은 저소득·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약 1조 2,000억 원(2012년 2월 현재)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2조 2,0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대출대상은 주로 7~10등급 저신용자이며 이자율은 2~4.5%이고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생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음.
- 5) 미소금융 대출한도 증액

구분	현행	개선
운영자금	1,000만 원	2,000만 원
시설개선자금	1,000만 원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7,000만 원

- 또한 청년·대학생 전환대출⁶⁾, 긴급생활자금 대출⁷⁾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임.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액은 연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인 ‘바꿔드림론’지원 규모도 6,5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함.
- 또한 2013년 4월 종료 예정이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⁸⁾)를 계속 유지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확대⁹⁾할 방침임.

■ 또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안내를 통한 지원 활성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확대, 주택연금상품 가입 요건 완화,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 신설 등을 통해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할 예정임.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7/19)

6) 학자금 이외 생계자금(하숙비, 학원비 등) 등도 전환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원)생의 연령제한(현 29세)도 폐지할 방침임.
 7) 일률적·획일적 기준(예: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정량적 기준 엄격 적용)을 폐지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8) 연체 1~3개월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9) 現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 감면 → 최대 50% 감면